

## < 차이나타운 >

인천 중구 일대는 조선 시대 ‘제물포’라 불리던 한적한 어촌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관문이자 대형 항구 입지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끊임없는 개항 요구를 받았다. 1876년 체결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장으로 지정, 1883년 1월 개항했다. 이후 1883년 9월 일본과 1884년 4월에는 청국과의 전관조계를 설정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각국 공동조계를 설정했다.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구역인 조계 설정으로 외국인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서구 문물이 들어왔다. 조계지별로 각국의 특색 있는,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섰다. 청일조계지계단을 중심으로 왼쪽이 청나라 조계지, 오른쪽이 일본 조계지였다. 일본 조계지였던 곳에 현재 인천아트플랫폼이 들어섰고, 청나라 조계지였던 곳이 지금의 차이나타운이다.

도시의 변화는 크고 작은 모습으로 뻗어 나갔다. 옛 일본18은행과 일본58은행, 일본제1은행 건물도 모두 보존하여 재활용했고, 곳곳에 버려진 건물을 갤러리나 카페로 속만 바꿔 사용한다. 옛 일본18은행은 1890년 준공하여 같은 해 10월, 한국 금융계 지배를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다. 이후 한국흥업은행지점, 카페, 중고가구도매상이었다가 현재는 내부구조를 개축하여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사용한다.

옛 일본58은행은 일본 오사카 본점이 있는 ‘일본 제 58은행’의 인천지점으로 1892년 7월 완공하여 문을 열었다. 주로 인천전환국에서 주조하는 신화폐와 구화폐를 교환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후 야스다은행, 조흥은행으로 변했다. 한때는 대한적십자경기도지사로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천 중구외식업지부로 사용한다. 58은행 옆 작은 건물에는 인천광역시 관광정보안내센터를 마련했다. 이 역시 내부구조만 구축, 외관은 보존한 상태다. 옛 일본제1은행은 인천 금융기관의 효시로 광복 후에는 한국은행으로 개편해 한국은행 인천지점으로 사용했다. 현재는 석고 외관을 그대로 유지, 보수하여 개항박물관으로 사용한다.



## < 아트플랫폼 >

인천아트플랫폼이 위치한 인천 중구 해안동 일대는 1883년 개항 이후 건립된 건축문화재 및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잘 보존된 구역으로 당시의 근대건축기술 및 역사적 기록을 지니고 있어 건축조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舊일본우선주식회사(등록문화재 제248호)를 비롯한 근대 개항기 건물 및 1930~40년대에 건설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이러한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 하자는 시민들의 뜻과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 탄생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이곳 개항장 일대는 거대한 스트리트 뮤지엄으로 확장되어나갈 예정이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되 현재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일 것이다.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 규모 : 2단지, 13개동, 지하1층~4층
- 대지면적 8,450.3m<sup>2</sup> / 건축면적 4,165.06m<sup>2</sup> / 연면적 5,593.43m<sup>2</sup>





